

국토교통부, “GTX-A 구성역 6월 말 개통 준비 철저”

- 이용자 안전·편의를 최우선으로 구성역 현장 곳곳 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4일 오후 GTX-A 구성역 건설현장을 찾아 오는 6월 말 개통 목표인 구성역의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다.
- GTX-A 구성역은 현재 주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금일 영업시운전에 착수하는 등 순조롭게 개통 준비가 진행 중이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A 구성역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GTX를 통한 수도권 교통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용인시민분들은 구성역을 이용할 수 없어 이를 체감하시기 어려웠다”며, “용인시민분들께 약속드린 6월 말 구성역 적기 개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최적의 환승체계 마련 등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백 차관은 GTX-A 구성역 현장 곳곳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관계자를 만나 “지금까지 적기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끝으로, 백 차관은 “GTX-A 구성역 개통이 임박한 만큼, 지역 주민분들께 시간표, 환승 동선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 “언론사 초청 등을 통해 GTX-A 구성역 개통 준비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잘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6. 14.

국토교통부 대변인